

덕질은 나의 길... 사랑하라 덕후처럼



박민영
“‘김비서’와 비슷한 듯
다른 캐릭터”

‘그녀의 사생활’ tvN 10일 첫방송... 웹소설 ‘누나팬닷컴’ 원작

뚝 떨어지는 펜슬 스커트에 순정만화 속 주인공 같은 펜슬머리로 사랑받은 ‘김비서’가 이번에는 극성 아이돌 팬으로 돌아온다.

tvN은 오는 10일 새 수목극 ‘그녀의 사생활’을 선보인다고 3일 예고했다. 지난해 젊은 시청자들로부터 크게 사랑받은 오피스 로맨틱코미디(약칭 로코) ‘김비서가 왜그럴까’의 박민영이 다시 한번 로코 여주인공으로 나선다.

‘그녀의 사생활’은 직장에선 완벽한 큐레이터지만 알고 보면 아이돌 덕후인 여자 성덕미(박민영 분)가 까칠한 남자 상사 라이언(김재욱)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오피스를 배경으로 하고, 까칠한 남자 상사와 만나는 점에서 ‘김비서가 왜그럴까’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성덕미가 ‘이중생활’을 한다는 점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이다.

박민영은 3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전작을 많은 분이 사랑해주셨는데 같은 장르에 또 도전하는 게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니 한 번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또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연기하다 보니가 정말 다른 캐릭터더라.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라고 덧붙혔다.

박민영의 로코 재도전과 더불어 최근 ‘보이스’, ‘쇼 더 게스트’ 등 주로 장르극에서 활약해온 김재욱의 로코 연기도 기대를 모은다.

김재욱은 “저의 밝은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이 작품을 만나 섰

탁했다”면서 “제가 안 해 본 역할에 도전하는데, 단단하고 노련한 박민영 씨에게 많이 의지하며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며 파트너와 호흡을 과시했다.

그는 또 “로코 주인공을 맡는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란 걸 알게 됐다”라며 “저희는 ‘19세 시청가’까지는 아니지만 아슬아슬하게, 그러면서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장면을 민영 씨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웃으며 귀띔하기도 했다.

이에 박민영 역시 “재욱 오빠는 존재만으로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적으로 많이 의지한다”라고 화답했다.

박민영은 또 아이돌을 과하게 사랑하는 캐릭터에 대해선 “나 역시도 H.O.T.의 열렬한 팬이었다”라며 “팬 활동은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무기”라고 말해 이미 역할에 꼭 빠져있음을 드러냈다.

김재욱은 마지막으로 “예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예쁜 이야기인 만큼 기분 좋은 봄날을 만끽하면서 저희 드라마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웹소설 ‘누나팬닷컴’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 연출은 ‘명불허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라이프’ 등을 만든 홍중찬 PD가 맡았다.

홍 PD는 “‘덕질’(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열정적으로 뭔가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시청자들도 이번 작품을 통해 사랑과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시리라 기대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10일 밤 9시 30분 첫방송.

/연합뉴스

김재욱

“로코 주인공 참 기분좋아”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뱅커(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원손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5 꾸러기 식자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5 뽀글이 사랑해 55 술플 때 사랑한다(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전국시대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지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가로채널(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닥터 프리즈너(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뱅커	00 빅이슈 속성 마스터 9~16회
[10]	00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시민의 탄생 55 UHD 숨터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킬빌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어리 45 문화사책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외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07:30 출동! 슈퍼킹스 08:00 덩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람달라 뿌우 09:00 두다다쿵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고기조림과 참나물 샌드위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특집 다큐-제노사이드: 평범한 사람들 13:00 지식채널e 13:10 최고의 요리비결 〈7가지 버터구이와 미니리 새우샐러드〉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4:30 멤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6:15 출동! 슈퍼킹스 16:30 람달라 뿌우(재) 16:45 덩동댕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17:30 뽕뽕뽕 뽕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원더볼즈(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세계테마기행 〈남아프리카 야생 대탐험 4부 바람의 도시들〉 21:30 한국기행 〈소쿠리에 담아 볼 4부 청산도, 봄이 오나 봄〉 21:50 다큐 시선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주체에 따라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클 것이다. 48년생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60년생 마음을 꼭 내려놓고 믿어도 된다. 72년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겠다. 84년생 인화 단결 여부가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10, 95	 午	42년생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상황임을 감안하자. 54년생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누각이 되는 법이다. 66년생 물처럼 순조롭다. 78년생 부수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주된 것의 손실이 있다. 90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만족할 만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4, 07
 丑	37년생 집중하다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49년생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니 패념치 말고 조처하라. 61년생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도달 할 것이니라. 73년생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주의하자. 85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 77, 37	 未	43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55년생 변화의 조짐에 주목해야 한다. 67년생 부담스러운 일들이 속출할 것이니 즉시 철회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명분은 무의미하니 실속을 차려야 할 때이니라. 91년생 공전의 판국을 이끌만한 찬스이다. 행운의 숫자 : 20, 39
 寅	38년생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50년생 발 빠른 실태 분석과 조처가 절실하다. 62년생 초기 상황에서 손을 써야만 한다. 74년생 앞만 보고 뛰어가지라. 86년생 정황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선회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45	 申	44년생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하리라. 56년생 물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68년생 바람직한 여건이니 수용해도 된다. 80년생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별할 일이다. 92년생 거칠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니라. 행운의 숫자 : 31, 99
 卯	39년생 형세를 좌우할만한 대국이다. 51년생 기대 해왔던 바가 실망시키는 정황이다. 63년생 종기는 끝났을 때 짜야하고 숨은 필 때 걸려야 하느니라. 75년생 사세부득이 그렇게 뒀을 알라. 87년생 실체보다 훨씬 돋보일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6, 17	 酉	45년생 완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57년생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적 사실이 깃들여 있다. 69년생 성취하는 단계에 이른다. 81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93년생 불만족스럽다면 원인 요소부터 면밀히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93, 85
 辰	40년생 보기와는 달리 실속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52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64년생 공감하였다고 해서 공동 행동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76년생 명분이 확실하다면 제가해도 된다. 88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3, 56	 戌	34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임정이 된다. 46년생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니 잘 활용하자. 58년생 도모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70년생 부분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82년생 파사로 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썩트리라. 행운의 숫자 : 54, 03
 巳	41년생 정면으로 맞대응 하자. 53년생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고 나서하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65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라. 77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89년생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03, 50	 亥	35년생 아무리 아깝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47년생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겠다. 59년생 포괄적인 조치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71년생 준비하는 경향에 따라 성취도가 다르다. 83년생 황당한 일에 직면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1, 9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하하, EBS ‘뭉치지 뮤직박스’ 진행

EBS TV는 4일부터 유아동 창의 음악 교육프로그램 ‘뭉치지 뮤직박스’를 매주 목·금요일 오전 8시 10분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통령’(초등학교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가수 겸 방송인 하하가 진행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 친숙한 물건들로 놀아보고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하하는 3일 “두 아이를 두고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둔 아버지 입장에서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라며 “특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오감발달 교육은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뭉치지 뮤직박스’는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첫 방송에서는 몸으로 낼 수 있는 소리를 탐색해 봄과 동시에 몸의 소리를 이용한 아카펠라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미디TV 개그쇼 ‘스마일 킹’ 론칭

코미디TV는 새로운 개그쇼 ‘스마일 킹’을 오는 21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방송, 개그계 터줏대감 KBS 2TV ‘개그콘서트’와 정면 대결을 벌이겠다고 3일 예고했다.

최근 개그 프로그램의 침체가 장기화하며 ‘개그콘서트’와 tvN ‘코미디빅리그’만이 명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스마일 킹’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마일 킹’은 공연 형식의 코미디쇼를 TV로 고스란히 옮겨온 공개 방송 코미디쇼다.

극장에서 공연 중인 개그맨 김정환, 김지영, 도대웅, 현정 등 박승대 사단이 현장감을 살린 풍토 코미디를 펼친다. 또 심형래, 이동갑, 황현희, 한현민 등 방송 경험이 많은 베테랑 코미디언들이 특별 출연해 개그쇼 부활에 힘을 보탠다.

박승대는 “지상파와 종편도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최고의 시청률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며 “부지런한 습관으로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